

실체적 속성으로서의 진리의 개념과 역할* **

김 동 현

【요약문】 본 논문은 진리의 본성과 역할 등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다양하게 엇갈리고 있는 축소주의적 견해를 아우르는 핵심을 어떻게 특징지을 것인가의 이슈를 논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축소주의와 팽창주의가 각각 옹호 및 반대하는 핵심 논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몇 가지 해설들을 아머.갑과 빌의 문헌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 불만족스러운가를 살펴볼 것이다. 이로 부터 축소주의의 핵심은 개념적 기초성과 설명소진성에 있으며, 대안적으로 이해된 형태의 개별성 논제는 축소주의의 핵심이 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축소주의의 또 다른 중요한 주장인 표현 논제는 개념적 기초성과 설명소진성으로부터 도출됨을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표현 논제에서 거부되는 진리의 비-언어적인 설명적 역할이 무엇인가는 여전히 불분명하므로, 그것의 명료화를 위해 시도될 수 있는 몇 가지 가능한 명료화들을 살펴보고 그것들이 왜 거부되어야 하는가를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진리 조건이 수행하는 설명적 역할에 대한 덤밋의 의견을 요약하고, 만약 덤밋이 옳다면 진리의 설명적 역할은 어떤 점에서 팽창적일 수밖에 없는가를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이로부터 얻어지는 두 진영에 대한 이해는 두 진영 모두를 아우르는 연결된 고찰을 통해서 더욱 넓어진다. 이는 추가적인 함의를 결론을 대신하여 덧붙일 것이다.

【주요어】 진리, 축소주의, 팽창주의, 설명적 역할, 진리 조건

* 접수일자: 2011.09.23. 심사 및 수정 완료일: 2011.12.09. 게재확정일: 2012.01.12.

** 이 논문은 2010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 연구역량강화사업)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51-A00026).

1. 문제의 제기

진리 축소주의 내에서 진리의 본성, 역할, 그리고 진리와 밀접하게 연결된 또 다른 개념인 의미와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게 엇갈린다. 따라서 축소주의를 아우르는 핵심을 어떻게 특징지을 것이며 그러한 특징을 어떻게 상술해야 적합할 것인가의 이슈가 제기된다. 이 질문은 축소주의에 반대하는 진영, 즉 진리 개념이 의미, 지칭, 지식, 행위의 규범성 등 다양한 요소들의 설명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문헌들에서 발견되는 비슷한 혼란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도 요청된다.

그런데 이런 논의는 어떤 실익이 있는가? 축소적인 그리고 팽창적인 진리 사이의 구분 기준은 단지 임의적인 약정의 문제는 아닐까? 이 토론이 필요한 이유는 축소주의의 애매한 주장들을 분명하게 하는 작업은 더 중요한 문제인 의미의 설명을 위해 진리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가의 여부를 둘러싼 여러 의견들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진리가 의미에 대해 설명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는 의미와 진리 사이의 설명적 관계에 대해 상이한 의견을 가질 수도 있음이 확인된다.¹⁾

축소주의자들이 그리고 그에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또 정확히 무엇을 주장하는지 관해서 나타나는 문헌적 혼란들의 사례는 자주 발견된다. 후자의 경우만 예를 들어보자. 흔히 진리 조건적 이론이라고 통칭되는 의견들 내에서 나타나는 진리의 역할에 관한 상술들은 다양한 형태를 가지며 그에 따라서 진리가 진정한 속성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의 의견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형이상학적 이슈가 의미론적 이슈보다 설명적으로 선행한다고 보는

¹⁾ Bar-On, Horisk, and Lycan (2001a, 2001b), 김동현 (2010) 참조.

데이빗은 축소주의를 진리 반실재론의 한 갈래로 이해하며²⁾, 올스톤은 주로 인식론적인 관점에서 진리의 역할이 없는 지식의 문제에 올바르게 접근할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축소주의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데 그의 비판은 올스톤이 옹호하는 특수한 종류의 진리 실재론에 논거를 두고 있다.³⁾ 그에 반해서 패러다임적인 진리 조건적 이론으로 받아들여지는 데이빗슨의 의미론에서는 진리 개념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획이 실재론과 개념론의 대립이라는 측면에서 이론 내적으로 긴장을 지닌다는 점은 이미 논의가 이루어졌던 부분이다.⁴⁾ 비록 데이빗슨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주어지는 원초적 개념으로 받아들이며 진리에 대한 어떠한 명시적 정의도 거부하지만 그의 존재론에서 진리가 실체적 속성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도입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좀 더 주의 깊은 검토를 요한다. 지칭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진리가 가지는 설명력의 긍정도 진리 개념을 이론적 구성물로 간주한다거나 그것에 도구주의적 시각을 적용할 가능성을 가로막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서 데이빗은 데이빗슨의 지칭 반실재론과 도구주의적 견해가 진리 반실재론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지적한 바도 있다.⁵⁾

진리 축소주의의 지탱가능성의 모색 뿐 아니라 축소주의와 대립하는 진리 조건적 이론 진영과의 논쟁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진리의 역할에 대한 진전된 특성화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이 쟁점을 직접적으로 토론하는 문헌들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여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축소주의자들은 진리에는 추가로 밝혀내야 할 본성이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팽창적인 진

2) Devitt (2001).

3) Alston (1996).

4) Eynine (1991).

5) Devitt (1984).

리 개념이 수행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에 관한 상세한 규정 역시 논의의 동기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마이클 윌리엄스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면 그런 문제를 고민하는 것은 “문제를 뒤로 후퇴시키는 것”⁶⁾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는 축소주의의 시각에서 가능한 의견일 뿐이며, 중립적인 시각에서 공정한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라면 본 이슈는 고찰의 동기를 가진다.

본 논문의 목적은 축소주의나 팽창주의를 옹호 혹은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옹호와 비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개념적 토대를 더 굳건히 하기 위한 선행적 작업에의 기여이다. 이를 위해서 축소주의와 팽창주의가 각각 옹호 및 반대하는 핵심 논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몇 가지 해설들을 검토하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 불만족스러운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축소주의의 중요한 주장인 표현 논제에서 거부되는 진리의 비-표현적인 설명적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 시도될 수 있는 몇 가지 가능한 명료화들을 살펴보고 그것들이 왜 거부되어야 하는가를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진리 조건이 수행하는 설명적 역할에 대한 덤밋의 의견을 요약하고, 만약 덤밋이 옳다면 진리의 설명적 역할은 어떤 점에서 팽창적인가를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이로부터 얻어지는 추가적인 함의를 결론을 대신하여 덧붙일 것이다.

2. 축소주의의 세 논제

진리 축소주의가 진리 대응론이나 정합론 등과 같은 팽창적 진리론과 구별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진리를 철학적으로 심오한 탐구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본다는 점이다. “진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충분한 대답은 동치 도식의 예화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⁶⁾ Williams (2002), p. 153.

것이 전부이므로 진리의 본성과 참의 성립 등에 대한 더 나아간 철학적 해명은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여기서 진리 담지자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도식 안의 쌍조건언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할 것인가에 따라 축소주의 내에서도 동치 도식의 위상과 명칭이 달라진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잠정적으로 동치 도식이라는 명칭과 함께, 진리 술어가 부가되는 언어적 대상을 **의미가 해석된** 문장으로 간주하고 따옴표로 표시할 것이다.)

하지만 여러 문헌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하듯이 이 주장은 애매하다. 축소주의가 축소시키고자 하는 진리의 본성이란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하는가? 즉시 떠오르는 한 대답은 진리 표현의 문법적인 외양은 위장(deceptive)일 뿐이며, 진리 표현의 부가에 의해 진리 담지자에 귀속된다고 생각되는 속성, 가령 ‘사실과 대응함’과 같은 속성 따위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대답은 축소주의자들의 또 다른 주장인, 진리 표현은 논리적 표현적 역할만을 수행할 뿐이며 그것이 나타낸다고 추정하는 속성은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주장과도 잘 조화된다는 점에서 그럴 듯하게 들리기도 한다. 어떤 속성이 단지 ‘말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어떤 진정한 역할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가령 이 용액이 가진 산성이라는 속성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 속성의 담지는 그 용액에 담긴 금속조각이 용해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푸른 리트머스 시험지를 붉게 변하게 하는 인과적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반면에 산성이거나 산성이-아님과 같은 가짜 속성의 담지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축소주의는 진리 속성도 바로 그와 마찬가지로 주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대답은 만족스럽지 않다. 왜냐하면 축소주의적 진리는 어떠한 진정한 속성도 나타내지 않는다는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속성이란 무엇인가의 규정에 의존해

야 하는데, 속성이란 무엇이며 진리 담지자가 담지하는 대응, 정합 등의 속성이 어떤 측면에서 진정한 혹은 가짜 속성인가는 축소주의의 특성화보다 더 까다롭고 불분명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윌리엄스와 호위치 등의 일부 축소주의자들은 진리를 진리 담지자가 지니는 속성이라고 명시적으로 인정한다. 단지 진리 속성은 다른 속성들보다 얇은(thin) 속성일 뿐이라는 것이다.⁷⁾ 물론 이들이 진리를 속성의 일종으로 인정하는 의도는 오로지 표현적 장치로서의 자격에 불과한 진리 술어의 역할을 나타내려는 것이지만, 그들의 서술은 축소주의 진영에서 거부하기를 원하는 진정한 속성으로서의 진리 개념이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보다 나은 실마리는 아머-갭과 빌이 제공한다. 그들은 축소주의의 핵심을 개념적 기초성과 설명적 기초성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한다.⁸⁾ 첫째로, 개념적 기초성은 동치도식의 예화들은 진리 개념 및 그보다 더 기초적인 개념들 사이에서 성립하는 대응, 정합 등과 같은 정의적 관계로부터 도출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개념적 기초성 논제는 진리는 정의될 수 없는 원초적인 개념이라는 주장과는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진리의 정의불가능성의 핵심은 “진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환원적 답변은 주어질 수 없다는데 있는 반면에, 개념적 기초성의 핵심은 아머-갭과 빌이 지적하듯이 동치도식의 예화들은 선형적, 필연적일 뿐 아니라 분석적이기도 하다는데 강조점이 찍혀 있다. 여기서 동치도식의 예화가 분석적 진리라는 것은 그 쌍조건언 양변에 포함된 의미들에 의해 동치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말한다. 비록 “분석적”이라는 용어는 확실히 콰인과 같은 축소주의자들이 거부하는 분석/종합의 구분을 축소주의가 선제적으로 요구하느냐는 논란을 충분히 야기할 수도 있는 표현이

7) 예를 들면 Williams (2001), Horwich (1998) 등.

8) Armour-Garb and Beall (2005).

지만 이 표현은, 진리에 대한 모든 필요한 답론은 그 진리가 귀속되는 문장의 의미가 해석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사소하게 제공된다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축소주의적으로 이해된 동치도식 예화들은 데이빗슨적 진리 이론(곧, 의미 이론이기도 한)을 구성하며 경험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는 이론적 가설로서의 T-문장들과는 구별되는 위상을 가진다.

둘째로, 아머-갑과 빌은 설명적 기초성을 다시 설명소진성과 개별성의 두 부분으로 나눈다. 설명소진성 논제는 동치도식의 예화들은 진리 표현을 포함하는 답론들에 관해 철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설명을 소진적으로 제공한다는 주장이며, 개별성 논제는 동치도식의 예화들 각각이 왜 성립하는가에 대한 통합적 설명은 주어질 수 없다는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개별성 논제를 참인 모든 문장들에 대해서 그들이 왜 참인가를 설명하는 보편적인 설명은 주어질 수 없다는 논제라는 대안적인 방식으로 이해해 보자. 실제로 축소주의를 해설하는 몇 가지 문헌들에서 개별성 논제를 참인 문장들 각각의 참에 대한 통합적인 설명은 가능하지 않으며 그것이 왜 참인가는 오직 개별적으로만 설명될 수 있다는 논제로서 서술하는 것이 발견된다. 그러한 문헌들은 대안적으로 서술된 개별성 논제를 중심에 놓고 축소주의의 특성화를 시도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와 “지구는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두 문장은 모두 참이다. 그렇다면 이 문장들은 무엇을 공유하는가? 축소주의자들에 의하면 가령 포유류임과 같은 실체적 속성은 이 강아지와 저 송아지가 왜 포유류인가에 대한 공통의 설명을 가지는 반면,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와 “지구는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라는 두 문장이 왜 참이 되느냐에 관한 공통적인 설명은 부재하다는 것이다. 그 문장들이 참이 되는 이유는 한국의 역사와 태양계의 모습에 의해서 각각 별도로 설명된다.⁹⁾ 블랙번의 서술도 이와 비슷하

다. 그는 참인 문장들 모두가 왜 참이냐고 포괄해서 묻는 것은 축소주의의 시각에선 마치 어떤 비행기 안의 승객들에 대해 그들이 왜 같은 비행기에 타고 있느냐고 묻는 것과도 같다고 비유한다. 각각의 승객에 대해서라면 그 이유를 묻고 답할 수는 있지만 그들 모두를 망라하는 이유는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블랙번은 “축소주의를 이해하는 한 가지 좋은 방식은 … **일반을 개별로 대체**하는 것으로서 이해하는 것”¹⁰⁾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필자는 이렇게 대안적으로 이해된 개별성 논제는 비록 축소주의의 주장의 일부는 될 수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단독으로 축소주의의 핵심이 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진리가 모든 참인 개별 문장들의 참을 망라하는 설명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축소주의의 다른 논제들과는 독립적인 주장이기 때문이다. 설령 우리가 개별적인 심적 현상들에 대한 포괄적 설명 가능성을 부정하더라도 그것이 심적인 용어들에 철학적으로 탐구할 만한 흥미로운 문제는 아무 것도 없다는 주장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안적으로 이해된 개별성 논제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반드시 축소주의를 받아들여야 하는지는 분명치 않다. 예를 들어서 진리에 대한 어떠한 정의 시도도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철학자는 대안적 개별성을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반드시 축소주의적 입장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진리 개념에 중심적인 설명적 역할을 부여하는 데이빗슨은 어떤 주어진 언어에 대해서 그 언어의 문장들이 참이 된다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대답은 없으며 가령 어떤 특정한 프랑스어 문장인 ‘La neige est blanche’이 참이 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에 대해서만은 눈의 희다는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데이빗슨을 진리

⁹⁾ Stoljar and Damnjanovic (2007).

¹⁰⁾ Blackburn (2005), p. 59.

축소주의자로 간주하는 블랙번의 서술¹¹⁾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다. 물론 데이빗슨을 진리 축소주의자로 분류하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있는 의견이지만, 블랙번이 제시하는 논거는 개별 문장이 왜 참이 되느냐에 대한 질문과 그 문장이 참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혼동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가 왜 참이냐고 물으면 역사적, 지리적 설명이 뒤따라야 하는 반면, 그 문장이 참이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한국의 수도가 서울인 조건이라고 대답해야 마땅할 것이다. 전자의 질문은 진리 조건적 이론 및 축소주의 양측에 중립적인 질문이지만, 후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두고서는 한 쪽은 다양한 의미론적 문제들에 대답을 제공할 발판으로 삼는 반면 다른 한 쪽에서는 어떤 흥미로운 것도 없고 탐구의 실익도 없는 대답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의견이 갈라진다.¹²⁾ 게다가 데이빗슨적 구도에서 해석자가 개별 발화에 대한 원초적 해석을 시도하는 목적은 그 특정한 발화가 왜 참이 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발화의

11) Ibid., pp. 199-203.

12) 이에 대해 어떤 문장이 왜 참인지에 대한 질문을 그 문장의 진리조건에 호소하여 답변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가령 어떤 언어 L의 문장 “P”의 진리조건이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것이라면, “문장 P가 언어 L에서 왜 참인가?”라는 질문에의 답변으로서 역사적, 지리적 설명이 아니라 “이 문장이 참인 이유는 한국의 수도가 서울일 경우 오직 그 경우에만 이 문장이 참이고 또 한국의 수도가 실제로 서울이기 때문이다”라고 답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진리조건을 제시하는 방식의 대답은 문장 P가 왜 참인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문장 P의 의미를 그것이 참이 되기 위한 조건의 제시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에 해당한다. 물론 우리는 문장 P의 의미를 설명함으로써 그 문장이 왜 참인가에 대한 설명도 아울러 제공할 수 있지만, 그러한 설명의 유효함은 대상언어 문장의 의미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원초적 상황에서 두드러진다. 본문의 맥락에서 지금 축소주의자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문장 표현’이란 그것의 의미가 이미 해석된 문장들이므로 그 문장이 왜 참이 되느냐고 묻는 것은 그 문장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는 것과는 구별되는 질문이 될 것이다.

참임을 기초로 삼아 그 언어 전체에 관한 진리 이론을 경험적으로 확증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데이빗슨의 원초적 해석이 개별적 문장 토큰 단위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을 개별 문장의 참임에 대한 설명으로 간주하고 데이빗슨을 진리 축소주의자로 분류하는 블랙번의 서술은 온당치 않다. 아머-갑과 빌이 서술한 방식의 개별성 논제는 축소주의의 주장의 일부이지만, 대안적으로 이해된 개별성 논제는 진리 축소주의 뿐 아니라 진리의 정의불가능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도 똑같이 수용 가능한 중립적인 주장이다.

그러면 축소주의에 관한 문헌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또 다른 주장인 표현 논제, 즉 진리는 어떠한 설명적 역할도 수행하지 않으며, 오로지 표현적, 논리적 역할만을 수행한다는 논제는 어떠한가? 표현 논제는 축소주의 진영의 문헌에서도 중심적으로 주장될 뿐 아니라 축소주의에 반대하는 학자들이 가장 중점을 두어 대항하는 지점이기도 하다.¹³⁾ 그럼에도 아머-갑과 빌은 왜 표현 논제를 축소주의의 핵심의 일부로 포함시켜 서술하지 않았을까? 필자의 생각으로는 그 이유는 표현 논제가 개념적 기초성 논제와 설명소진 논제로부터 다음과 같이 파생적으로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진리 표현을 필요로 한다고 하자. 설명소진 논제에 의해 진리 표현이 적용되는 논의(truth-talk)에 관한 모든 필요한 설명은 동치도식의 예화들에 의해 소진적으로 주어진다. 그런데 그러한 동치도식의 예화들은 개념적 기초성 논제에 의해서 그것의 성립을 설명하는 보다 기초적인 관계로부터 도출되

¹³⁾ Davidson (1990), pp. 282-295. 참조. Davidson (1996), p. 33.의 다음의 언급은 보다 직접적이다. “호위치는 진리가 일차적으로는 명제에 귀속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진리를 문장과 발화에 부가할 수 있는지도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이 설명이 진리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개념에 직접적으로 호소하지 않으면서도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 호위치는 간략하며 심지어 과묵하기까지 하다.”

지 않는다. 따라서 동치 도식의 예화들은 진리 개념으로부터도 역시 도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진리 개념은 설명의 대상을 설명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어떠한 위치도 점유할 수 없다. (여기서 축소주의자들은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 진리 **표현**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 장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설명 내에서 진리 표현의 요청은 축소주의의 주요 주장들과 상충하지 않는다. 이를 잘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가, 그의 논문 제목에서도 명시적으로 나타나듯이, 진리의 설명적 역할에 대해서만 축소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표현적 역할에 대해서는 축소주의적 역할을 취하지 않는 브랜덤의 견해이다.¹⁴⁾)

따라서 축소주의적 진리론의 중심은 개념적 기초성 논제와 설명소진 논제에 있으며, 축소주의를 둘러싼 여러 담론에서 중심으로 논의되는 표현 논제는 이들로부터 파생된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아머-갑과 빌의 해설은 적절하다. 그러나 아머-갑과 빌이 제안한 버전과는 다르게 대안적으로 이해된 개별성 논제는 축소주의의 주장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그것은 진리를 팽창적이면서도 원초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이빗슨 등의 입장과 양립 불가능하지는 않은 논제이므로 축소주의의 핵심이라고는 볼 수 없다. 물론 견해에 따라서는 데이빗슨 이론이 개념적 기초성 논제와 양립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개별성 논제는 각각의 진리 담지에 대한 공통의 설명이 없다는 논제이지 각각의 진리 담지자들이 공유하는 공통의 속성이 없다는 논제는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혹자는 이에 대해서, 만약 팽창주의자들이 표현 논제를 거부하고 그리고 표현 논제가 개념적 기초성 논제와 설명소진 논제로부터 함축된다면, 팽창주의자들은 그 두 논제들 중 최소한 하나를 거부

¹⁴⁾ Brandom (2005).

해야 할 것인데, 그렇다면 팽창주의가 거부하는 논제는 둘 중 어느 쪽이냐는 추가적인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 대답은 팽창주의 진영 내의 다양한 견해들에 달려 있다. 그에 따라서 어느 하나만을 거부할 수도 있고 혹은 둘 다를 거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것은 표현 논제는 앞의 두 논제로부터 파생된다는 것, 그리고 따라서 팽창주의자들은 두 논제 모두를 긍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의 두 논제가 축소주의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러한 뜻이다.

3. 진리의 비-표현적 설명적 역할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쟁점이 만족스럽게 정리된 것은 아니다. 팽창주의의 입장에서는 축소주의자들이 표현 논제에 의해 거부하는 진리의 **설명적** 역할이란 정확히 어떤 역할인지를 규명해야 할 부담을 가지기 때문이다. 축소주의자들이 긍정하는 진리의 표현적 역할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김연아가 오늘 아침 7시 30분에 발화한 문장은 참이다”와 같은 비-내용적 긍정(blind ascription)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로서의 역할이고, 다른 하나는 “ $A \vee \neg A$ 형식의 모든 명제는 참이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어떤 발화는 참이다”와 같이 표현 불가능한 명제들에 대한 대입적 양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장치로서의 역할이다. 축소주의자들은 이 두 가지 역할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진리가 수행한다고 여겨지는 그 이외의 역할은 모두 거부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설명적 역할이란 어떤 역할인가?¹⁵⁾

15) 축소주의자들은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할 책임이 없으며, 대답해야 하는 쪽은 팽창주의자들이다. 다만 1장에서 언급했듯이 본 논문이 이 질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축소주의를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논의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점검하기 위해서이다.

진리의 설명적 역할에 대한 명료화가 요구되는 동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축소주의와 팽창주의 양측은 공히 축소적 진리와 진리 조건적 설명이 양립 불가능하다는데 동의하지만, 비록 소수이기는 하나 양립 가능론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¹⁶⁾ 그들이 주장하는 양립 가능론은 축소주의가 ‘진리의 설명적 역할’과 같이 불분명한 개념을 긍정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진리의 설명적 역할에 대한 규정은 양립 가능론을 반박하고자 하는 측에 힘을 실어주는 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축소주의와 팽창주의 양측 모두에 필요하다. 둘째로, 팽창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이 작업은 진리 축소주의로부터의 한 가지 공격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단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서 윌리엄스는 통상적으로 진리 조건적이라고 알려진 설명에서 적용되는 진리의 역할은 표현적 역할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러한 설명 방식을 채택한 학자들도 축소된 진리를 거부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¹⁷⁾ 팽창주의자들이 이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진리 조건적 설명에서 진리가 수행하는 설명적 역할이 어떤 점에서 축소적일 수 없는가를 논증할 필요가 있다.

이제 질문에 답해보자. 혹자는 진리의 설명적 역할을, 전제들에 진리 표현이 포함된 명제가 포함되는 경우에만 피설명항에 해당하는 명제가 논리적으로 도출되며 동치 도식에 의해서 원래의 진리 표현을 제거하면 피설명항이 논리적으로 도출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손쉽게 특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여기서 말하는 “설명”은 전제와 결론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논증으로 간주되고 있다. 하지만 이 제안은 적절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제거 불가능한 진리 표현을 포함하는 전제로부터 논리적 귀결을 도출하는 추론은 축소

¹⁶⁾ Bar-On, Horisk, and Lycan (2001b).

¹⁷⁾ Williams (1999).

주의자들도 거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호위치는 단어 사용의 규범성을 다음과 같은 추론을 통해서 설명하는데, 이 추론에서 진리 표현은 필수적으로 포함된다.¹⁸⁾

w는 F를 의미한다.

w는 F를 의미한다. $\rightarrow (x)(w$ 는 x 에 대해서 참이다 $\leftrightarrow fx)$

$(x)(w$ 는 x 에 대해서 참이다 $\leftrightarrow fx) \rightarrow$ 우리의 목적은 오직 fx 일

때에만 w 의 x 에의 적용을 수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fx 일 때에만 w 의 x 에의 적용을 수용해야 한다.

명제의 참이 실재(reality)에 의존한다는 직관에 대한 설명도 위와 비슷하게 진리 표현을 포함하는 전제로부터의 추론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¹⁹⁾ 그렇다고 해서 축소주의자들이 의미의 규범성이나 대응 직관 등이 진리에 의해서 설명되었다고 시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위 추론들에서 ‘참’이 하는 역할은 해당 문장들의 연언을 편리하게 표현하기 위한 약어(abbreviation)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점은 선우환 교수의 논문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선우환 교수는 최소주의가 진리에 대해 필요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호위치의 주장에 대항하는 데이빗의 견해를 검토하면서, 최소주의 이론 및 팽창적 진리 개념을 포함하지 않는 적절한 배경 이론들로부터 진리에 관한 사실들을 연역 가능해야 한다는 데이빗의 조건을 보다 적절한 방식으로 변경하여 제안한다.²⁰⁾ 그러나 호위치와 데이빗, 그리고 선우환 교수 모두 진리 술어를 포함하는 최소주의 무한 이론으로부터 진리에 관한 사실로의 연역 추론이 진리가 수행하는 설명적 역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 추론에서

¹⁸⁾ Horwich (2005), pp. 20-21. 여기서 ‘w’는 단어, ‘F’는 술어, ‘f’는 그 술어가 나타내는 개념이다.

¹⁹⁾ Horwich (1998), pp. 104-105.

²⁰⁾ 선우환 (2006).

귀결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진리 개념이 아니라 진리 표현이므로, 진리는 말과 말 사이의 관계를 이끌어내는 논리적, 표현적 역할만을 한다고 간주되어야 한다. 의미가 진리에 의해서 설명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윌리엄스조차도 의미의 축소주의적 설명에서 진리 표현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도 똑같은 사항이 거듭 확인된다.

“진리-담론이 의미의 설명에서라든가 인식론적 또는 방법론적 목표와 규범에 관한 진술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축소주의자들이 진리-담론의 기능이 전적으로 표현적이라고 말할 때, 그들은 진리-담론이 그런 곳들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진리-담론은 … 우리에게 일반적인 인식론적 또는 방법론적 규범과 목표를 형식화할 수 있게 해준다. 축소주의자들은 그러한 규범과 목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진리의 본성에 호소할 수는 없다.”²¹⁾

진리 표현을 포함하는 필수 불가결한 전제와 피설명항으로서의 귀결 사이의 논리적 지지관계만으로 진리의 설명적 역할을 규정할 수 없는 이유는, 위 추론들의 전제와 결론 사이의 논리적 함축 관계는 진리 술어가 수행하는 표현적 장치 이상을 요구하지 않으며 언어적 표현 사이의 관계로만 국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축소주의자들이 반대하고 팽창주의자들이 긍정하는 진리의 설명적 역할은 언어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넘어서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비-표현적 역할이란 무엇인가?

표현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넘어서는 것으로서의 진리의 역할은 어떻게 규정될 수 있는가? 평범한 상식에 뿌리를 둔 한 가지 손쉬운 대답은, 진리 속성이 부가되는 문장 표현에 귀속되는 참임 (being true)이 수행하는 역할은 그 문장 표현을 모종의 비-표현적

21) Williams (2002), pp. 157-158.

사실과 인과적 혹은 자연주의적으로 연결시키는 기능이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안은 주지하다시피 더 많은 곤란한 문제들을 야기할 뿐 아니라 실제로 수용되고 있지도 않는 대답이다. 이 제안에 의하면 심지어 의미를 진리 조건적으로 설명하는 학자들조차도 진리의 설명적 역할을 거부한다고 말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데이빗슨의 진리 조건적 기획은 정의되지 않는 원초적 개념으로서의 진리 개념에 의거하여 언어 표현이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 시도하면서도 사실과 문장 사이의 대응 관계를 시인하지 않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설명 대응 관계를 대상과 술어 사이의 만족 관계를 통해서 규정한다 하더라도, 진리의 역할에 의존해서 의미를 설명하는 진리 조건적 이론은 결국 의미를 또 다른 의미론적 개념인 만족에 의해서 설명하는 순환에 빠지고 말 것이다.²²⁾

진리의 비-표현적 역할을 규정하는 또 다른 대답은 그것을 진리 실재론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식적 검증범위 바깥에 있는 문장에도 참 또는 거짓의 진리값이 귀속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을 진리의 설명적 역할을 긍정하는 견해와 같은 생각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동치도식의 예화의 성립을 설명하는 한 가지 전통적인 방식이 대응에 호소하는 것인데 전통적으로 대응론은 자주 진리 실재론과 연결되어 논의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 제안은 얼핏 솔깃하게 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이 제안에 동의할 철학자 역시 (축소주의와 팽창주의 양측 공히) 실제로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축소주의자인 슝즈는 진리 실재론과 반실재론 사이의 진정한 의견 불일치는 특정한 종류의 문장, 예를 들어서 “우주에 접근 불가능한 영역에 쌍둥이 태양이 존재하거나 혹은 존재하지 않는다”와 같은 종류의 문장 자체에 대한 의견 불일치이지 그런 문장들에 부

²²⁾ Davidson (1990), pp. 299-300 참조.

가되는 진리 술어의 본성에 관한 논쟁이 아님을 지적한다. 진리 표현은 단지 논란이 되는 종류의 문장들을 문법적으로 적합하게 일반화시키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며, 참 또는 거짓의 진리값을 가질 수 있는가(다른 말로 하면 진리 표현을 적절하게 부가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대해 실재론자들과 반실재론자들의 의견이 갈라지는 종류의 문장들은 동치 도식에 따라서 진리 표현을 떼어버린 문장으로 항상 변환될 수 있으므로 실재론-반실재론 논쟁에서 진리 술어에 얽힌 쟁점은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다.²³⁾ 호위치도 진리 실재론과 팽창적 진리론은 독립적인 주장임을 논변한다. 그는 실재론과 반실재론 사이의 논쟁의 핵심을 사실이 가지는 두 가지 대립되는 특징들인 독자성(autonomy) 즉 우리의 인식으로부터 독립적이라는 특징과, 접근가능성(accessibility) 즉 그것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획득할 수 있다는 가능성 사이의 긴장에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진리에 대한 모든 해명이 동치 도식에 의해서 모두 주어진다고 받아들이는 축소적 견해는 두 가지 특징에 대한 견해 차이에 관한 대답을 모두 열어놓는다고 그는 논변한다. 우리는 흔히 대응론은 실재론으로 인식론적 진리론은 반실재론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지만, 호위치는 대응론적 혹은 인식론적 진리론으로부터 사실에 대한 담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왜 동치 도식의 예화들이 성립하는가에 대한 대응론적 혹은 인식론적 정당화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그러나 호위치는 팽창적 진리의 정당화도 사실의 독자성과 접근가능성에 관한 문제와는 독립적임을 논변한다.²⁴⁾ 여기서 호위치가 말하려는 주된 핵심은 축소주의적 진리는 실재와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개념은 동치 문장들이 말하는 것에 의해 모두 소진적으로 제공되는가 아니면 그보

23) Soames (1999), pp. 32-39.

24) Horwich (1996).

다 더 많은 무언가가 있는가의 여부는 어떤 진리 담지자의 참임이 우리의 인식으로부터 독립적인가의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또 다른 논문에서, 도덕적 사실이나 이론적 사실과 같이 실재론-반실재론 논쟁에서 첨예한 논란을 낳는 특정한 종류의 사실들에 대해서, ‘P’와 ‘P’라는 것은 사실이다(It is a fact that P)’ 사이의 사소한 동치관계만을 주장하고 받아들일 것을 제안한다. 물론 논의의 영역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사실들이 다양한 개념적 역할을 가지지만, 우리가 사실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이 다양성을 당혹스러워 하는 이유는 단지 우리에게 관찰 가능한 중간 크기의 물리적 사실들을 우리가 페러다임적인 사실로 생각하기 때문일 뿐이라는 것이다.²⁵⁾ 호위치의 궁극적인 주장은 그의 논문의 제목에서도 암시되듯이 실재론-반실재론 논쟁을 일소하자는 제안이지만, 진리에 대한 그의 입장과 연결시켜 생각하면 그는 진리의 본성이 몇몇 논의영역에서의 진술들에 관한 실재론-반실재론 대립과는 관계가 없다는 주장도 아울러 말하고 있다. 과연 호위치는 진리 축소주의자이면서도 사실과 참 사이의 관계 등에서 실재론적 입장을 취하며 이 점은 데이빗도 동의하는 사항이다.²⁶⁾ 커크햄 역시 호위치가 이가 원리를 수용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어 그를 준-실재론자(quasi-realist)로 분류하고 있다.²⁷⁾

이상의 의견들에서 보듯이, 축소주의를 받아들이면서도 검증 불가능한 문장에 참 또는 거짓의 진리값이 귀속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일관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축소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로 간주될 것이다. 그러므로 진리의 비-표현적 역할이 무엇인지를 진리 실재론과 연결시켜 규명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되기 어렵다.

25) Horwich (2006).

26) David (2006).

27) Kirkham (1992).

4. 진리 조건

지금 우리가 묻고 있는, 표현 논제에서 거부되는 진리의 비-표현적인 설명적 역할이 무엇이나는 질문은 의미 그리고 다른 개념들의 진리 조건적 설명에서 진리 조건이 담당하는 역할이 무엇이나고 묻는 질문으로 변환시켜 답을 모색할 수 있다. 동치도식의 예화들의 성립을 거칠게 이해하면, 축소주의자들은 개념적 기초성 논제에 따라 이미 확립된 의미들을 기초로 하여 동치도식의 예화의 성립을 받아들이는 반면에, 진리 조건적 이론에서는 거꾸로 동치도식의 예화들을 근거로 하여 의미의 설명으로 나아간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진리 조건적 의미 설명 전략인 데이빗슨의 의미 이론은 외연 논리 즉 명제들의 의미를 고려하지 않는 논리에 의존한다. 그렇다면 문장 표현의 의미가 주어졌다는 조건 하에서 동치도식의 성립은 필연적, 선형적, 분석적이라는 개념적 기초성 논제를 받아들일면서 동시에 그 성립은 의미에 의존하고 의미는 다시 진리 조건에 의해 설명된다고 말한다면 이는 순환을 낳을 것이므로, 진리 조건적 이론은 축소주의의 핵심 주장의 하나인 개념적 기초성 논제를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처럼 축소주의의 궁정은 곧 진리 조건적 설명의 거부로 이어진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진리 조건이 수행하는 비-표현적인 설명적 역할은 무엇이나는 질문으로 이어진다.²⁸⁾

28) 진리의 비-표현적인 설명적 역할을 검토하는 도중, 3장부터 논점이 진리 조건의 역할로 넘어가는 맥락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다. 사실 이 논점은 처음부터 본 논문의 주제였다고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진리의 설명적 역할을 거부한다는 축소주의자들의 주장은 많은 맥락에서 진리 조건의 역할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과 혼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두 주장이 어떻게 연결되며 또한 어떻게 대답될 수 있는가가 본 논문의 처음 동기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실제로 진리 조건적 이론은 축소주의와 양립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덤밋은 진리 조건적 의미론과 축소주의적 진리가 양립 불가능하다는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어떤 사람에게 “눈은 희다”의 의미를 설명한다고 해보자. 우리는 그에게 그 문장이 참이기 위한 조건은 눈이 희다는 것이라고 말해줄 수 있다. 하지만 설명을 제공 받는 사람은 “~가 참이다”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자. 만약 우리가 진리 술어의 의미를 그에게 축소주의적으로 제공하면 결국 아무런 설명도 제공되지 않은 셈이 되어버린다. 왜냐하면 축소주의자들에 의하면 진리 술어에 대한 모든 설명은 “눈은 희다”가 참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눈은 희다는 것이며, “풀은 녹색이다”가 참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 등등에 의해서 소진되기 때문이다.²⁹⁾

그러면 진리 조건적 이론에서 진리 조건이 수행하는 비-표현적인 설명적 역할이란 무엇인가? 진리 조건이 수행하는 역할을 규정하는 가장 단순한 선택지는 문장의 진리 조건과 의미는 **동일하다**는 등식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면 진리 조건의 의미 설명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은 사소하게 주어질 것이며 더 나아가 프레게의 맥락 원리에 의해 문장 뿐 아니라 개별 단어의 의미를 위해서도 진리 조건이 어떻게 설명적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말해 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논의에서 의미와 진리 조건을 단순히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캠프는 이 동일시와 팽창적 진리를 동시에 받아들여지게 되면 비일관적인 결과를 낳게 됨을 지적한다.³⁰⁾ 그의 논증은 프

²⁹⁾ Dummett (1999), pp. 276-277.

³⁰⁾ Kemp (1998). 캠프의 논증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문장의 이름을 꺾쇠로 표시하고, that p는 ‘p’에 의해 표현되는 명제의 이름, 그리고 ‘p’에 의해 표현되는 뜻(sense)을 Cont<p>, 그리고 진리 조건을 TC라고 하자. (1) Cont<p> = that p는 사소하게 성립한다. 그리고 의미와 진리 조건을 동일하다고 하면, (2) Cont<p> = the TC of <p>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 진리에 의해 귀속되는 실체적 속성을 C라고 하자. 그러면 <p>가 참이기 위한 필요

레게의 이른바 진리의 투명성(transparency property of truth) 논증을 응용한 것이다. 프레게에 의하면 “지금 비가 온다”고 판단, 주장, 의문 ... 등을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비가 온다는 것은 참이다”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를 진리의 투명성 현상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 현상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프레게에 의하면 “~라는 것은 참이다(it is true that)”에 의해서 어떠한 실체적이고 팽창적인 속성도 판단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것에 의해서 설명된다. 그렇지 않고 진리가 실체적 속성 P로 분석된다고 가정하자. 다시 말해서 어떤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그것이 P라는 것이라고 하자. 속성 P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팽창주의 내에서도 의견이 갈라지겠지만,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일단 ‘사실에 대응한다’는 속성이라고 해보자. 그러나 진리에 대한 이 가정을 받아들이면 다음의 두 표현에 사이에서는 투명성이 성립하지 않는다.

지금 비가 온다.
 지금 비가 온다는 것은 사실과 대응한다.

충분조건은 $C\langle p \rangle$ 가 될 것이다. 그러면 (1)과 (2), 그리고 C의 정의로부터 (3) The TC of $\langle p \rangle = \text{that } C\langle p \rangle$ 이 도출된다. 그러면 (3)과 (2)로부터 (4) $\text{Cont}\langle p \rangle = \text{that } C\langle p \rangle$ 가 도출되고, 다시 (4)와 (1)로부터 (5) $\text{That } p = \text{that } C\langle p \rangle$ 가 도출된다. 다시 말해서, C가 실체적인 속성이라는 가정과는 달리 C가 귀속되든 그렇지 않든 결과는 동일하다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귀결이 얻어진다. 이처럼 켈프가 제시하는 논증의 줄기는 본문에 요약된 프레게의 진리 투명성 논증과 크게 다르지 않음이 보인다. 추가적으로 켈프는 데이빗슨이 팽창적 진리와 의미 / 진리 조건 등식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전체론(holism)에 의해 각각의 문장은 개별적으로 특정한 명제를 의미한다는 생각을 거부함으로써 비일관성을 극복할 수 있었던 반면에, 프레게는 의미론적 확정성(semantic determinacy) 즉 문장을 구성하는 각각의 표현들은 특정한 지시체 또는 의미론적 값을 가진다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대신 팽창적 진리를 포기하는 선택을 했다고 해설한다.

왜냐하면 위의 것은 날씨에 대한 판단인 반면 아래의 것은 그보다 더 많고 복잡한 것들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실체적 속성의 귀속은 새로운 화제의 도입을 가져온다. 하지만 “지금 비가 온다”를 “지금 비가 온다는 것은 참이다”로 바꾸더라도 새롭게 도입되는 화제는 없다. 그러므로 진리는 실체적 속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블랙번과 칼데론 등은 이 논증을 프레게가 진리를 진정한 속성으로 간주하지 않았으며 진리 축소주의에 호의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근거로 공히 서술한다.³¹⁾

문장의 진리 조건이 성립한다는 것은 곧 그 문장의 사상이 참이 된다는 것과 같으므로 진리는 투명한 속성이라는 프레게의 주장과는 달리, 이를 응용한 켐프의 논증은 의미 - 진리 조건 등식이 얼마나 받아 들일만한가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 프레게의 진리 투명성 현상은 P와 P가 참이라는 것이 서로 필연적으로 동치라는 것이지만, 그로부터 P와 P가 참이라는 것의 뜻이 동일하다는 것이 도출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켐프의 주장이다. 어떤 **실체적** 속성을 가지는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은 동일할 수 없을 것이다. 켐프는 명제나 문장과 같은 진리 담지자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장한다. 그가 드는 예를 인용하여 “플라톤에 의해 믿어짐”이라는 속성을 생각해 보자. “눈은 희다”는 것과 “플라톤은 눈이 희다고 믿는다”는 그 뜻이 동일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진리를 실체적 속성으로 간주하는 가정 하에서라면, 의미와 진리 조건을 동일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³²⁾ 즉, 동일성 관계의 수용은 진리의 본성에 관한 선행가정을 받아들여야만 유효할 전망이 있다는 것이 프레게와 켐프의 논증을 통해서 확인된다. 그러므로 진리가 수행하는 비-표현적 역할을 동일성 관계에서 찾으려 드는 선택은 우리의 작업에서

³¹⁾ Blackburn (2005), pp. 60-61. 및 Kalderon (1997).

³²⁾ Kemp (1998), pp. 488-489.

마땅히 배제되어야 한다.³³⁾

진리 조건의 역할에 관한 보다 유용한 통찰은 진리 조건적 이론과 축소주의 둘 다를 거부하는 학자인 덤밋이 제공한다. 덤밋에 의하면 문장 의미 이해에는 두 가지 구성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그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에 대한 이해이고, 다른 하나는 그 문장이 그 명제를 표현한다는 것에 대한 이해이다. 그러므로 진리 조건적 의미 설명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장이 참이 되기 위한 조건과 특정한 맥락에서의 그 문장 발화의 유의미성 사이의 연결(connection)에 대한 최소한 암묵적이기라도 한 이해”³⁴⁾가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진리 조건적으로 의미가 설명되는 문장을 지칭하지 않고서는 즉 문장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서는 이해의 두 번째 구성요소를 설명할 길이 없을 것이다. 이처럼 진리 조건적 의미 설명에서는 바로 그 문장이 이러저러한 진리 조건 즉 명제를 표현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의 의미가 설명되고 있는 문장을 “~는 참이다”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지칭하는 과정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는 참이다”가 문장을 지칭하는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으려면, 문장이 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선행적 이해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유로 진리 조건적 의미 설명에서 진리는 제거 불가능하다고 덤밋은 주장

33) 팽창주의는 진리 조건과 의미 사이의 동일성을 주장할 수 없지만, 데이빗슨의 경우에는 문장의 의미를 그것의 진리 조건과 동일하다고 말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데이빗슨의 전체론적 구도에서는 “눈은 희다”와 “눈은 희다는 것은 참이다”의 의미가 동일성 관계로 대응한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데이빗슨은 프레게-캠프의 진리 투명성 논증의 적용범위 바깥에 놓인다고 보아야 적절할 것이다. 데이빗슨에게 “‘눈은 희다’가 참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눈의 희다는 것이다”는 그 쌍조건언의 양변의 의미가 동일하기 때문에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진리 투명성 논증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데이빗슨의 진리 조건적 의미 설명에서는 진리 조건이 수행하는 비-표현적인 설명적 역할이 정합적으로 긍정될 수 있다.

34) Dummett (1999), p. 277.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 문장 “Every fungus is poisonous”를 한국어 화자에게 진리 조건적으로 설명한다고 생각해 보자. 일반적인 형식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Every fungus is poisonous”가 참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엽록소가 없는 모든 식물은 그것을 먹은 자가 아픈 혹은 죽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혹자는 위 예문에서 진리 술어와 인용부호를 제거해도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좌향의 ‘Every fungus is poisonous’는 위의 쌍조건문에 의해 그것의 의미가 설명되는 문장으로서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Every fungus is poisonous’라는 문장 자체가 좌변에서 **사용**되게 된다. 따라서 덤밋이 말하는 문장 이해의 두 번째 구성요소가 만족되지 못한다. 혹은 그 문장의 이름인 “Every fungus is poisonous”만을 좌변에 쓰고 진리 술어를 없애버리면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 되어 버릴 것이다. 따라서 덤밋은 진리 조건적 의미 설명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문장이 특정 상황에서 참이 된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선행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로부터 덤밋은 진리 조건적 설명이 순환적이라는 비판도 추가적으로 제기한다. 진리 조건적 설명은 진리 개념에 대한 선행적 이해를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지만, “진리 개념이 내용을 얻는 것은 그것이 의미를 설명하는 문장들의 사용을 통해서”³⁵⁾이기 때문이다.

“만약 진리 조건적 의미 이론이 옳다면, 진리 개념은 의미의 개념에 제거 불가능하게 연결된다. 두 개념 중 어느 하나를 다른 한 개념을 이미 이해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설명하려는 것은 헛된 노력이다. 그들은 함께 설명되어야 한다.”³⁶⁾

³⁵⁾ Dummett (2006), p. 52.

그런데 덤밋이 말하는 진리 조건적 의미 설명이 진리를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이유에서, “~는 참이다”가 수행하는 문장 지칭 장치로서의 역할은 어떤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하는가? 만약 우리가 덤밋의 논증을 진리 개념이 아닌 진리 표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대답으로 이해한다면, 이 역할은 축소주의자들도 수용할 수 있는 표현적 역할이 되어 버릴 것이다. 진리 술어를 문장을 가리키는 대명사처럼 간주하는 진리의 대용적(anaphoric) 기능은 축소주의자들도 긍정하는 유사한 역할이다. 하지만 진리 조건적 설명과 축소주의 사이의 양립불가능성을 주장하는 덤밋이 ‘문장이 참이 되기 위한 조건’을 그와 같이 표현적인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되도록 의도하지는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진리 조건적 설명에서의 진리의 필수적 역할은 반드시 팽창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 팽창적 역할은 무엇인가?³⁷⁾ 여기서 우리는 문장의 참임 그리고 그 문장이 참이 되기 위한 조건이 그 문장의 의미를 제공한다는 설명적 관계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진리 조건이 수행하는 팽창적 역할은 단순히 문장 표현 자체를 지칭하는 것 뿐 아니라, 지금 그 문장이 참이 되는 조건의 제시를 통해서 의미가 설명되고 있는 언어적 표현이 다름 아닌 바로 그 표현이라는 것임을 알리는 역할, 즉 동치도식의 예화의 좌변에서 언급된 문장의 의미가 아직 알려지지 않았을 때, 우변에서 제공되는 문장 의미 혹은 명제가 바로 그 언급된 문장의 의미임을 알려주는 역할이기도 해야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역할은 어떤 측면에서 팽창적인가?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대답은, 그러한 역할은 설명소진 논제 및 표현

36) Dummett (1999), p. 281.

37) 본 논문은 덤밋이 비일관적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만약 덤밋이 말하는 것처럼 축소주의와 진리 조건적 설명이 양립 불가능하다면 그리고 진리 조건적 설명에서 진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 진리는 어떤 측면에서 팽창적인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논제와 조화될 수 없다는 점에서 팽창적이라는 것이다. 즉, 진리 조건이 수행하는 위와 같은 역할이 표현적이지 않은 이유는 그 역할을 표현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진리 조건에 의한 의미 설명이 진정하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덤밋의 양립불가능성 논변에서도 나타나듯이 진리에 대한 동치도식의 예화들의 설명소진성을 수용한 하에서, “눈은 희다”의 의미를 ““눈은 희다”가 참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눈은 희다는 것이다”를 통해서 제공하게 되면 실제로는 아무런 설명도 제공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아울러 팽창적 진리의 또 다른 중요한 특성인 개념적 기초성 역시, 본 장의 서두에서 밝힌 것과 같은 이유에 의해서 비슷한 방식으로 함께 거부된다.

필자는 축소주의의 핵심 주장들에 관해서 우려되는 불명료함을 제거하기 위하여 진리가 수행하는 비-표현적인 설명적 역할이 무엇인가를 밝히려 시도하였다. 그리고 만약 진리 조건의 역할이 덤밋의 통찰대로 문장과 명제 사이의 연결을 나타내는 역할이라면, 그러한 역할이 어떤 점에서 팽창적인가의 질문을 이어서 제기했다. 그리고 그 역할이 팽창적인 이유는 축소주의의 핵심 주장들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어떤 문장이 참이 된다는 것이 설명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그러한 설명은 진정한 설명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축소주의의 논제들과 충돌하기 때문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5. 맺는 말

지금까지의 논의는 축소주의자들이 무엇을 거부하느냐의 질문은 진리 조건이 수행하는 설명적 역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연결되어 고찰되어야 한다는 것을 함의한다. 그러나 이는 진리의 설명적 역할을 특성화하는 작업이 축소주의의 핵심을 규정하는 작

업과 곧바로 똑같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장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진리의 설명적 역할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작업은 팽창주의의 과제이지 축소주의의 적극적 주장 내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축소주의 그리고 팽창주의를 확립하는 작업은 마땅히 구성적이어야 하며 각각의 반대논제의 부정(negation)을 통해서 각각의 핵심 논제를 구획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 특히 4장에서 진행한 논의들은 두 진영에서 각각 주장 및 거부하는 내용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양측 모두에 대한 연결된 고찰을 통해서 더욱 풍부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진리의 축소성과 설명적 역할에 대해 본 논문이 도달한 지점은 그동안 팽창주의자들과 축소주의자들이 말해 온 것들로부터 크게 벗어난 제안은 아니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흥미롭지 않은 주장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본 논문의 작업은 토대적 작업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새로운 제안보다는 이해의 확장에서 기여의 의의를 찾아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연이은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찾는 과정에서 기존의 몇 가지 대안들을 살펴보고 그것들이 왜 불만스러운가를 설명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검토한 여러 견해들이 가능한 대안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보다 정밀한 논의를 위한 더 많은 견해들의 검토와 정리는 필자가 앞으로 더 보완해야 할 숙제이다. 뿐만 아니라 본 논문에서 검토한 이른바 ‘축소주의’의 범위가 여전히 협소한 것이 사실이다. 필자는 축소주의와 팽창주의의 핵심 주장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줄곧 동치도식을 중심에 놓고 논의를 진행시켰다. 하지만 모든 축소주의자들이 동치도식의 예화들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브랜덤과 같은 추론주의자들은 동치도식의 예화에 의존하지 않는 형태의 독자적인 진리 축소주의를 구축한 바 있다.³⁸⁾ 이처럼 ‘축소주의’라는 표제 하에 놓일 수

³⁸⁾ Brandom (2005).

있는 진리관의 폭이 넓은 만큼 이를 고찰하는 시야의 폭도 더욱 넓힐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아머-갑과 벌의 원래 논제인 동치도식의 예화들의 개별적 설명가능성 논제가 다른 축소주의 논제들과 가지는 관계와 같은 몇 가지 중요하면서도 파생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은 보류한 상태로 남겨두고 있다. 이 역시 향후의 연구를 통해 대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2011년 7월 15일 한국논리학회 2011년 여름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다. 유익한 논평을 해 주신 김명석(이화여대) 교수님, 발표에 앞서 초고를 읽고 조언해주신 정인교(고려대), 이병덕(성균관대) 교수님과 박일호(고려대) 박사, 그리고 필자의 실수를 정확히 지적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세 분께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본 논문의 제목은 실체적 속성으로서의 진리를 언급하고 있는 반면에 본문의 내용은 축소적 진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논문의 주제가 축소주의가 거부하는 팽창적 진리란 무엇인가를 탐구하는데 있으므로 논문의 제목이 내용과 불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문헌

- 김동현 (2010), “축소주의적 진리론에 관한 선언적 결론에 대하여”, 『범한철학』 58집, pp. 159-184.
- 선우 환 (2006), “진리에 대한 최소 이론의 설명력”, 『철학』 89집, pp. 109-140.
- Armour-Garb, B. and Beall J. C. (eds.) (2005), *Deflationary Truth*, Chicago and La Salle: Open Court Press, pp. 1-29.
- Alston, W. P. (1996), *A Realist Conception of Truth*, Cornell University Press.
- Bar-On, Horisk, and Lycan (2001a), “Deflationism, Meaning, and Truth-Condition”, in Armour-Garb, B. and Beall J. C. (2005), pp. 321-343.
- Bar-On, Horisk, and Lycan (2001b), “Postscript to ‘Deflationism, Meaning, and Truth-Condition’”, in Armour-Garb, B. and Beall J. C. (2005), pp. 344-352.
- Brandom, R. B. (2005), “Expressive vs. Explanatory Deflationism about Truth”, in Armour-Garb, B. and Beall J. C. (2005), pp. 237-257.
- Blackburn, S. (2005), *Truth: A guide*, Oxford University Press.
- David, M. (2005), “Minimalism and the Facts about Truth”, in Schantz (2002), pp. 161-175.
- David, M. (2005), (2006), “Horwich's World”, in P. Greenough and M. P. Lynch, (eds.), *Truth and Realism*, Clarendon Press: Oxford, pp. 203-207.
- Davidson, D. (1990), “The Structure and Content of Truth”, *Journal of Philosophy*, 87, pp. 279-328.

- Davidson, D. (1996), "The Folly of Trying to Define Truth", in D. Davidson, *Truth, Language, and History*, Oxford University Press, pp. 19-38.
- Devitt, M. (1984), *Realism and Truth*, Princeton University Press.
- Devitt, M. (2001), "The Metaphysics of Deflationary Truth", in Schantz, (2002), pp. 60-78.
- Dummett, M. (1999), "Of What Kind of Thing is Truth a Property?", in S. Blackburn and K. Simmons, (eds.), *Truth*, Oxford University Press, pp. 264-281.
- Dummett, M. (2004), *Truth and the Past*, Columbia University Press.
- Dummett, M. (2006), *Thought and Reality*, Oxford.
- Evnine, S. (1991), *Donald Davidson*, Stanford University Press .
- Horwich, P. (1996), "Realism and Truth", *Noûs*, Vol. 30, Supplement: Philosophical Perspectives, 10, Metaphysics, pp. 187-197.
- Horwich, P. (1998), *Truth*, Oxford University Press.
- Horwich, P. (2005), *Reflections on Meaning*, Oxford University Press.
- Horwich, P. (2006), "A World Without Isms", from in P. Greenough and M. P. Lynch, (eds.), *Truth and Realism*, Clarendon Press: Oxford, pp. 188-202.
- Kalderon, M. E. (1997), "The Transparency of Truth", *Mind*, New Series, Vol. 106, No. 423, pp. 475-497.
- Kemp, G. (1998), "Meaning and Truth-Condition", *The Philosophical Quarterly*, Vol.48, No.193, pp. 483-493.
- Kirkham, R. L. (1992), *Theories of Truth*, The MIT Press

- Schantz, R. (2002), *What is Truth?*, Walter de Gruyter GmbH & Co.
- Soames, S. (1999), *Understanding Truth*, Oxford University Press.
- Stoljar, D. and Damnjanovic, N. (2007), “The Deflationary Theory of Truth”, <http://plato.stanford.edu/entries/truth-deflationary/>
- Williams, M. (1999), “Meaning and Deflationary Truth”, *The Journal of Philosophy*, Vol. XCVI, No.11, pp. 545-564.
- Williams, M. (2002), “On Some Critics of Deflationism”, in Schantz, (2002), pp. 146-158.

안양대학교 교양학부 강의전임교수
dddg22@korea.ac.kr

The Concept and Role of Truth as Inflationary Property

Donghyun Kim

There are various views in the boundary of deflationism of truth in regarding the nature and role of truth. This paper surveys the issue on how the core thesis uniting the deflationism is characterized. First, I will examine some comments on what is the central thesis supported or rejected by the deflationists and inflationists, mainly discussing Armour-Garb and Beall's work, and will show on which aspects they are unsatisfying. From this, I will suggest these statements: first, the central cores of deflationism are conceptual fundamentality and explanatory exhausting. Second, the particularity thesis, understood in an alternative way, cannot be a central claim of deflationism. Third, another important claim from deflationists, the expression thesis, can be derived from the two main thesis above. But it is still not clear enough what the non-expressive explanatory role of truth, which is denied by the expression thesis. So I will check some possible clarifications on it and discuss why they should be rejected. And I will introduce Dummett's view on the role of truth condition in truth conditional explanation of meaning, and I will claim that if Dummett is right why the role must be a inflated one. Finally, I will suggest a further implication that the understanding on the both sides can be widened by connecting

considerations on both views.

Key Words: Truth, Deflationism, Inflationism, Explanatory role,
Truth condition